



2024 미국 대선과 한반도 비핵화

신성호(서울대학교)

I. 혼돈의 2024 미국 대선

2024 미국 대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보수 유권자 사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전한 인기가 확인되면서 일각에서는 트럼프의 재선을 점치는 목소리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몇 개월간의 여론 조사는 트럼프가 바이든을 이기는 가상대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누가 대통령이 될지 예측하기는 아직 이르다.

먼저 11월 5일 대선 투표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트럼프의 가장 큰 문제는 선거 일정과 맞물린 사법 재판 일정이다. 트럼프는 현재 4건의 형사사건에 91개 죄목으로 기소를 당한 상태이다. 그중 2016년 대선 당시 성추문 스캔들 입막음 대금 관련 장부조작 혐의로 매주 법정에 서고 있다. 트럼프는 이들 재판을 자신을 정치적으로 박해하기 위한 음모라 주장하며 대통령이 된 후 스스로 사면권을 행사할 계획으로 보인다. 그러나 촉박한 선거 일정 속에서 심각한 형사재판에 휘말리는 것은 재정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큰 장애 요인이다. 또한, 치열한 법정 다툼 속에 만에 하나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트럼프의 대선 홍보에 결정적 타격을 줄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재선을 낙관할 수 없는 리스크가 지적된다. 무엇보다 81세 역대 최고령의 나이로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의 건강에 대한 유권자의 불안감이 크다. 지구상에서 가장 힘들다는 미국 대통령직을 4년 더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은 이가 의문을 제기한다. 더 큰 위험은 경제위기 가능성이다. 코로나 이후 인플레이와 고금리에 시달리는 미국민의 상당수가 살기 어려워졌다고 생각한다. 양호한 경제지표에도 바이든의 지지율이 30% 초반의 저조한 하향 곡선을 그리는 이유이다. 바이든의 경제 리스크와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 등 11월 미국 대선은 아직 많은 시간과 변수가 남아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초고령의 두 전직 대통령이 격돌하는 이번 대선이 미국 민주주의의 미래가 달린 역사의 변곡점이 될 것이란 점이다. 많은 이가 트럼프가 재선되면 반민주적 권위주의 정권이 탄생할 것이라 걱정한다. 트럼프가 패배하더라도 또다시 선거부정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여 남북전쟁 이후 제2의 내전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바이든이 이번 선거를 미국의 운명이 달린 심판으로 주장하는 이유이다.

II. 미국 대선과 한반도

미국 대선에 대해 언제나처럼 전 세계도 촉각을 곤두세운다. 이언 브레머 유라시아 그룹 회장은 트럼프 재선 가능성을 “세계 최대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정의한다.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는 첫 재임 시보다 더 큰 혼란 속에 한국 등 동맹국들의 ‘불확실성’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문병기 2024/1/19).

트럼프 당선 시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는 재임 시 이미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5-6배 올릴 것을 주장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시사한 바 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30일 미국 타임지와 인터뷰에서 ‘(재선할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느냐’는 질문에 부유한 한국을 왜 미국이 지켜야 하느냐며 또다시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방 장관을 지낸 마크 에스퍼는 2022년 국내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를 수차례 주장했었다고 증언했다.

트럼프의 동맹 흔들기는 한반도 비핵화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의 한반도 확장억제와 북한 비핵화 협상 노력을 강화할 것을 합의하였다. 트럼프 재선 시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갈등은 동맹과 확장억제에 대한 한국 내의 신뢰를 손상할 것이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동맹정책은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불신과 한국의 독자 핵무장론이 본격적으로 고개를 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놀라운 점은 트럼프의 선거 캠프도 한국의 핵무장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트럼프의 핵심 외교 참모로 알려진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최근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핵우산 약속을 지킬 수 없다고 단언하며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을 중국 견제에 활용하는 대신, 나토의 영국과 프랑스가 핵을 보유한 것처럼 한미동맹과 한국의 핵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강태화 2024/4/25). 그는 또한 비핵화 협상에 대해 외교적 허구라고 비판하며 북한의 비핵화 가능성에 강한 의구심을 표명했다. 북한이 핵능력을 보유했기 때문에 미국의 핵확산 방지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 대신 도발 억제에 초점을 맞춰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안 브레머 회장은 트럼프가 재집권하면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 핵 동결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트럼프는 타임지 인터뷰에서 김위원장에 대해 “나와 매우 잘 지냈다”며 “비전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며 여전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정은 위원장이야말로 트럼프 재선 시 하노이의 아픔을 딛고 다시 한번 세기의 딜을 가능할지 모른다. 미국을 직접타격하는 대륙간탄도탄 개발을 중지하고 미국의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할수도 있다. 트럼프도 이번에는 북한 핵문제 타결이라는 극적 효과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형식적인 핵동결에 합의할지 모른다.

그 경우 북한의 핵보유국화로 한국에선 ‘자체 억지력(indigenous deterrent)’을 개발해야 한다는 압박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교수도 트럼프의 승리는 한국국민과 정책 결정권자 모두에 독자 핵무기 보유에 대한 요구를 높일 수 있다고 전망한다(Cha 2024).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한국과 일본이 독자 핵무장을 해서 북한과 중국의 핵에 대응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성연철 2019/10/20). 미국이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대신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워싱턴 선언’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II. 한국의 정책과제

2024년 북한은 남북관계를 전쟁 중의 교전국 관계라 선언했다. 동시에 한미 연합훈련을 전쟁연습으로 비난하며 전쟁 발발시 핵무력을 포함한 최대의 무력을 동원할 것이라 선포했다. 미국이 대선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2024년 한반도가 새로운 화약고로 부상할지 모른다. 바이든 정부가 선거에 몰두한 상태에서 남북관계를 관리할 주된 책임은 좋은 싫든 한국 정부의 몫이다. 한국 정부에게는 심각한 도전이다.

트럼프의 당선은 한반도 핵무장의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한국 내 핵무장 여론의 부상과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의 핵 도미노, 국제핵비확산체제 및 한미 동맹의 약화 등을 둘러싼 논란이 충돌할 것이다. 바이든 당선 시에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당장 기대하기 힘들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의 해결에 여전히 미국의 관심과 노력이 집중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누가 당선되든 선거 이후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 몸값을 한껏 올리고자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 한해 최대한 핵능력을 증가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한미동맹의 압도적 군사력에 북한이 전면전 도발을 하기는 어렵다.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평화를 유지하고 비핵화를 추구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한국의 안보이익이자 국가이익이다. 동시에 미국 대선을 전후로 펼쳐질 미북, 혹은 미중 사이 새로운 핵 외교의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 ■

참고문헌

강태화. 2024. “트럼프 외교안보 최측근 “한국 자체 핵무장 고려해야.” <중앙일보> 4월 25일.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4983#home>.

문병기. 2024. “압승 출발 트럼프 재선팬… 한국내 자체 핵개발 압박 커질 것.” <동아일보> 1월

19일.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40119/123125236/1>.

성연철. 2019. “트럼프 “한국·일본에 핵무기 개발·보유 허용.” <한겨레> 10 월 20 일.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736992.html>.

Cha, Victor. 2024. “Breaking Bad: South Korea’s Nuclear Option.” CSIS. 4 월 29 일.

<https://www.csis.org/analysis/breaking-bad-south-koreas-nuclear-option>.

■ 저자: 신성호_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 담당 및 편집: 박지수_EAI 연구원

문의: 02-2277-1683 (ext. 208) jspark@eai.or.kr

본 논평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AI는 어떠한 정파적 이해와도 무관한 독립 연구기관입니다.
EAI가 발행하는 보고서와 저널 및 단행본에 실린 주장과 의견은 EAI와는 무관하며 오로지 저자 개인의 견해를 밝힙니다.

발행일 2024년 5월 20일
“2024 미국 대선과 한반도 비핵화”
979-11-6617-757-6 95340

재단법인 동아시아연구원
03028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7길 1
Tel. 82 2 2277 1683 Fax 82 2 2277 1684

Email eai@eai.or.kr Website www.eai.or.kr